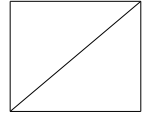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8-1호)



---

#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2011~2015년)

---

2010. 12. 21

기 획 재 정 부  
외 교 통 상 부

---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 유상협력 / 다자협력(국제금융기구) -

---

2010. 12. 21

**기 획 재 정 부**

# 순서

<b>I. 기본방향</b>	<b>5</b>
<b>II. 양자 유상협력 추진계획</b>	<b>6</b>
1.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6
2.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10
2-①. 국별 지원전략(CAS) 수립	10
2-②. 사업발굴 및 선정 절차 개선	11
2-③. 유·무상 원조 간 연계 확대	12
2-④. 정부-민간 연계 확대	13
2-⑤. 비구속성 원조 비율 제고	14
2-⑥. 프로그램 차관 도입	15
3.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강화	16
4.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
5. 국제개발논의에 대한 기여 확대	18
6. ODA 평가 역량 강화	19
<b>III. 다자원조(국제금융기구) 추진계획</b>	<b>20</b>
1. 다자원조 정책환경	20
2.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21
2-①. 국제금융기구 출자 전략	22
2-②. 양허성 기관 출연 전략	23
2-③. 신탁기금 출연 전략	24
<b>IV. 원조 기반 구축</b>	<b>26</b>
1. 개발경험 콘텐츠 작성	26
2. ODA 집행기관 역량 강화	27
3. ODA 홍보 강화	28
4. ODA 전문인력 양성	29



# I. 기본방향

## 지원 목표

- ◇ G20 개발논의에서 제시한 MDGs 달성 및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역할에 주목하여,
  - 개도국의 근본적 역량제고 및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 1. 개도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제고 지원

- 우리 수원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도로·항만·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
- KSP 등 정책자문 과정에서 발굴된 주요 사업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지식공유를 통한 개도국 정책역량 제고 및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보완

### 2. ODA를 보완하는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

- 개도국의 성장에 필요한 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 효과성 제고\*에 주력

\* 개도국 성장에 필요한 개발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ODA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송금·개도국 국내자원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이 필수적

- 무역역량 확충(Aid for Trade), 민관협력 방식(PPP) 지원을 통해 교역·투자 등 민간부문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 3. 개도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증진

-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확대하고, 여타 대외 정책수단(통상·투자·조세·금융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

## II. 양자 유상협력 추진계획

### 1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 (규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기본골격\*에 근거하여 '11~'15년간 약 4조 2천억 규모(추정치)의 자금집행 추진

\* 유·무상 비율 : (순지출) 40:60 내외 / (예산) 47:53 내외

○ 승인이 집행에 선행하는 차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중 적정 규모의 신규 사업 승인\* 추진

\* '11년~'15년 연도별 승인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 '11~'15년 EDCF 지원규모 추정치(단위: 조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ODA	1.6	1.8	2.4	2.9	3.5
집행	0.6	0.6	0.8	1.0	1.1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GNI 증가율 5% 가정

\*\* 국가재정 여건, 원조수요, 사업집행성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용방향) 중점협력국, MDB 협조용자, 기타 재원으로 구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원의 65% 내외를 배분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상위 10개국에 재원의 45% 집중

②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MDB 협조용자에 전체 한도의 20%를 배정하여 국별 한도와 별도 운용

\* 협조용자 일부를 중점협력국에서 실시하여 중점협력국 배분목표 70% 충족

③ 전체 재원의 15%를 기타(예비) 한도로 설정하여 협력대상국 개발수요,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④ 최빈국의 경우 상환능력·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전반적인 지원 비중을 축소\*

\* EDCF 최빈국 지원비중(승인 기준) : ('06~'09년) 35.5% → ('11~'15년) 20%

## 1-①. 지역별 지원계획

◇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중남미 등에 대한 경제협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지역 다변화

- (아시아) 개도국 수요, 경제협력 관계,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 유지
  - 신규 승인의 60% 내외를 지원하되, 경제발전 단계 등을 감안하여 역내 공여국 및 국제기구(WB, ADB)와의 협력사업, 민관협력(PPP) 등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지원 확대
- (아프리카) 최근 경제협력 수요 증대, MDGs 달성을 위한 자립 성장기반 조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협력 확대
  - 신규 승인의 20% 내외\*를 지원하되, 국제기구(AfDB) 및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성 보완
- \* 韓-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KOAFEC, '10.9월시 '10~'14년간 10.9억불 승인 공약
- (중남미) 우리의 개발경험 및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증가 등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을 확대
  - 신규 승인의 10% 내외를 지원하고, 자원보유국 등 전략적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점 지원
- (중동·CIS) 신규 승인의 8% 내외를 지원하고, 前後 재건 지원·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등 국가별 특수성 고려
- (대양주 등 기타) 신규 승인의 2% 내외를 지원하고, 원조 소외국을 중심으로 기초 인프라 지원 확대

### < '11~'15년 지역별 EDCF 자원배분(案) >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대양주·기타
지원비중	60%	20%	10%	8%	2%

## 1-②. 분야별 지원계획

◇ 개도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중점 지원

① (녹색성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녹색성장 분야를 최우선 지원

-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향후 5년간 지원 총액의 30% 수준으로 운용하고, 新성장 분야(태양광, 풍력, 바이오)에 대한 우대 지원조건\*\* 적용

\* 6대 분야: 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수력

\*\* I·II 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기타국가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0.05%p)

② (경제 인프라) 개도국 정부의 수요가 가장 크고,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필수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 (교 통) 도로·철도·교량·항만 등 인프라 및 교통시스템, CNG 버스·경전철 등 미래형 저탄소배출 교통수단 중점
- (에너지) 송배전망 구축,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 비상업성 에너지 인프라 중점
- (농 업) 농업기반 정비를 위한 대규모 농촌개발, 관개사업 중점

③ (사회 인프라)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향상, 정부역량 강화 등을 중점 지원

- (교 육) 고용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직업 훈련원 건립과 e-Learning 등 교육정보화 사업 연계 지원
- (보 건) 단순 시공보다는 개발계획, 병원건설, 초기 의약품 공급, 의료진 교육, 유지관리를 연계하는 Total System 구축
- (거버넌스) 전자정부 등 우리의 행정·IT 분야 기술을 접목하여 협력대상국 정부역량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 2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2-①. 국별 지원전략(CAS) 수립

◇ 한정된 ODA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유·무상 통합 지원전략(CAS) 수립

- (추진방향)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유·무상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를 고려하여 수립
  - (지원규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국가별 자원배분(안)에 근거하여 CAS 수립주기(3~5년)에 따른 중기 지원규모 결정
  - (지원분야) 협력대상국 개발계획 및 우리 비교우위를 함께 고려하되, 선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 중점 지원분야 선정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협력대상국과의 CAS 관련 정책협의를 중점 지원분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
- (추진일정) 협력대상국 개발계획 수립시점 등을 감안, '12년 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에 대해 통합 국별 지원전략(CAS) 수립
  - '10년중 베트남 등 3개국에 대한 CAS 수립을 착수하고 유·무상 공통으로 중요한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작성

## 2-②. 사업발굴 및 선정 절차 개선

### 1) 사업발굴 절차

◇ 사업 발굴 과정에서 관계부처·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 既구축된 EDCF-관계기관 연계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웹사이트(www.edcfkorea.go.kr)를 통한 상시 수요조사 강화\*\*

\* '08년 이후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12개 사업(468백만불)을 지원했으며, 87개 후보사업 관리중

\*\* 정기 수요조사(반기별 1회)를 병행 실시하고, 각 부처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협회 등)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수요 제출

○ 시스템 등록 사업에 대해서는 EDCF 지원가능성을 2단계로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신속한 Feedback 제공

\* (1단계) 지원가능 여부(Pass/Fail) → (2단계) 사업 우수성(A·B·C·D 등급 평가)

### 2) 사업선정 절차

◇ 사업 지원 여부가 사실상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사업검토를 실시

□ 연계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업(A·B 등급)의 경우 EDCF 정책협의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방안 협의

○ 필요시 EDCF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F/S) 지원 추진

□ EDCF 관계기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처 의견수렴\* 및 EDCF 사업 정보공유 확대

\* 사업심사 단계부터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추진

## 2-③. 유·무상 원조 간 연계 확대

◇ 선진화 방안의 연계모형을 토대로 CAS 수립 등 과정에서 국별 여건으로 고려하여 유·무상 연계사업\* 구체화

\* '11년중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연계 시범사업 추진

□ (연계모형 ①) 개발조사/KSP(무상) + 프로젝트 사업(유상)

○ KOICA 개발조사 사업과 EDCF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KSP 후속사업으로 EDCF 지원 요청시 우선 지원 검토

\* EDCF 지원 후보사업 목록을 공유하고 KOICA 개발조사 사업선정시 우선 고려

□ (연계모형 ②) 프로젝트 사업(유상) + 프로젝트 운영(무상)

○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전문가 파견 등) 연계 및 민간 부문과의 MOU·자매결연 등 추진

□ (연계모형 ③) 동일 지역내 연계

○ CAS 수립 과정에서 선정된 중점 지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시 유·무상 공동 현지조사\* 추진

\* '11년중 아제르바이잔 압쇄론 지역 물순환 시스템 구축사업 유·무상 연계지원 추진

□ (협력 네트워크 강화)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 시행 기관 간 실무협의 및 현지 협의 등 다층적 협력 채널 운영

○ (정책협의) “ODA 네트워크 회의\*”를 재개, 정례화(월1회) 하고 주요 정책현안 및 사업 관련 의사결정 사안 논의

\* 재정부·외교부(과장급), EDCF·KOICA(부장급) 참석 ('09년 3회 개최)

○ (실무협의) “EDCF-KOICA 정례협의”를 활성화(연2회→6회) 사업 정보공유 및 연계사업 발굴을 중점 협의

\* EDCF 주재원 파견지역을 중심으로 현지협의체 등을 통한 협력대상국 내 협력도 확대

## 2-④. 정부-민간 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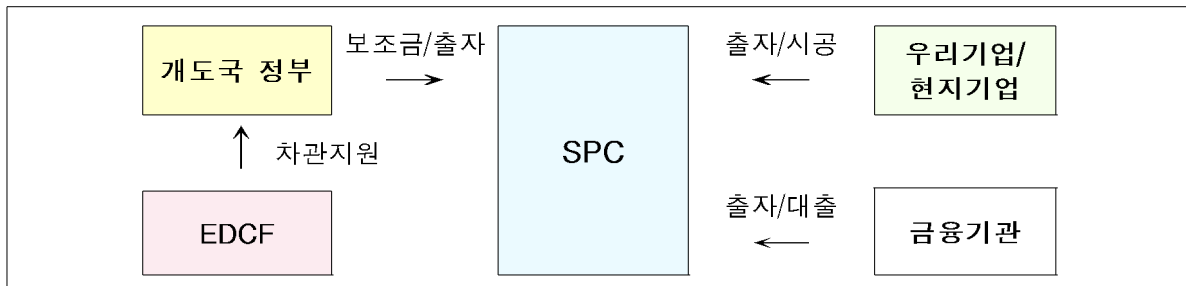
◇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의 민간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PPP) 방식을 활성화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민-관 연계 사업모델 수립

① 개도국 정부가 사업시행법인(SPC)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출자금 등을 EDCF 자금으로 지원\*

\* '11년중 솔로몬 군도 漁港 개발사업을 민자사업(PPP) 방식으로 최초 지원 추진중

### < EDCF를 통한 민자사업(PPP) 추진 모형 >



②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일부분을 EDCF 자금으로 지원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제고

③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부수되는 공공사업\*을 EDCF로 지원

\* 주변 진입도로 · 연결도로 등 배후 교통시설, 발전소 송변전시설 등

□ '11년중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상기 모델을 포함한 "EDCF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마련

\* 원조사금 외에도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 여타 공적자금 및 민간자금을 활용한 financing 지원 방안 검토

□ EDCF 사업 관련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단계에서 역량 있는 개발 NGO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

\*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컨설팅 영역, 교육·보건 등 사회분야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NGO 참여 추진

## 2-⑤. 비구속성 원조 비율 제고

◇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제고하되,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 (추진목표) 既추진 계획에 따라 EDCF 비구속성 비율을 '15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

\*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 비구속성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검토

○ 최빈국·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비율은 '12년 70%, '15년 85% 수준까지 확대

□ (추진방향) 국제사회 권고사항을 감안하되, 우리 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능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① (국가별) DAC 권고에 따른 최빈국, 고채무빈국(HIPC) 및 V그룹 국가\*(1인당 GNI 3,946불 이상) 중심 추진

\*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2년 이상 V그룹 해당시 구속성 원조 부적격국으로 분류

② (사업형태별) 국제기구 사업 중 우리 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MDB 협조용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액 비구속성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 차관 신규 도입

③ (분야별) 외국기업의 원천기술·특허 요구 정도가 낮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한 교통·수자원·IT 등의 시공 분야\* 중심 추진

\* 수주 경쟁력이 낮은 기본설계, CM/PM 등 컨설팅 부문 등은 구속성 원칙 고수

④ (보완책 마련) 개발 컨설팅 산업 육성 방안, 해외 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보완 대책 마련을 병행

## 2-⑥. 프로그램 차관 도입

◇ 기존 프로젝트 중심 지원방식을 다변화하여 협력대상국 주인의식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차관 도입

\* 프로그램 원조 비율('07년) : (DAC 평균) 47% vs (우리나라) 1%

□ (추진방향)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 거버넌스가 우수한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중심 추진

\*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확대 및 부족한 프로그램 원조 경험 보완

○ 지원 목적·분야가 명확한 부문별 예산지원 방식을 우선 도입하되, 중장기적으로 일반예산지원 방식 도입 검토

□ (추진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1년중 시범 사업 추진

① ('10년) 프로그램 차관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개정안 마련)

\* 프로그램 차관 관련 정의, 지원형식, 차관한도, 지원조건 등을 추가 반영

② ('11년) 베트남 기후변화 프로그램 차관\*(SP-RCC) 참여

\*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국가프로그램(NTP-RCC) 지원하기 위해 일본(JICA), 프랑스(AFD) 주도로 시행중인 프로그램 차관('09~'11년 운용)

< 참고 : 프로그램 원조(PBA) 도입시 원조효과성 지표 개선 내용 >

구 분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제고	-	Para 14
수원국 시스템 활용 확대	진도지표 5	Para 15
수원국 예산에 편성되는 원조비율 증대	진도지표 3	-
언타이드 원조 확대	진도지표 8	Para 18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	Para 26
공여국간 원조조화 증진	진도지표 9, 10	Para 16, 17
PBA 원조비율 증대	진도지표 9	Para 15

### 3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강화

◇ 정책협약의 활성화,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협력대상국 중심의 ODA 실시

□ (정책협약의 활성화) 26개 중점협력국 중 자원배분 기준상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EDCF 정책협약의 정례화(연1회)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가나, 볼리비아 (현재 자원배분案 기준)

○ 여타 국가와도 CAS 수립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책협약을 확대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대상국 의견수렴 강화

○ 유·무상 지원비중이 모두 높은 주요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통합 정책협약\*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정책협약시 후보사업 제출부처 등 주요 관계부처의 참석을 확대

□ (예측 가능성 제고)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CAS 수립과 연계, 중기 지원규모를 포함하는 EDCF 기본약정(F/A)을 체결\*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대상국의 예측 가능성 제고

\* ('10년말) 11개국 → ('12년말) 20개국 이상으로 확대

\*\* F/A 체결시 개별사업에 대한 시행약정(Arrangement) 체결 절차를 생략하여 지원 소요기간 단축(평균 8개월) 가능

○ CAS 수립시 협력대상국별 후보사업 리스트를 적시하고 매년 사업 발굴 및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Rolling Plan)

□ (재외공관 참여 및 지원 강화)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대상국 개발협력 관련 동향, 사업별 진행상황 및 특이 동향\* 등을 파악하여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

\* 주재국 개발계획 및 여타 국가 지원동향, Pledge, F/A 진행상황 및 조치 필요사항

#### 4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규모 및 지역정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 (국제기구 협조용자 확대) MDB 협조용자 규모를 3년내 전체 EDCF 지원의 20% 수준\*으로 배증 ('09년 10.3%)

① 주요 MDB와 중기 협조용자 규모 · 정보공유 · 인적교류 · 정례 협의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포함한 MOU 체결 추진

##### < 주요 MDB별 협조용자 자원배분(案) >

구분	WB	ADB	IDB	AfDB	계
비중	4%	10%	2%	4%	20%

\* MOU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 협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② EDCF 단독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기후변화 · 수자원 개발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

\* 정례 협의, Country Office 협의 등을 통해 협조용자 사업 Pool 구성 · 운영

③ MDB 협조용자 사업 등을 전담하는 다자협력팀을 수출입은행 (EDCF)에 설치하여 MDB와의 네트워크 및 업무 전문성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본, 프랑스(AFD), 독일(KfW) 등 선진 공여국과의 정례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아시아 개발협력 회의(ADCM)”를 정례화\*하여 역내 개발협력 강화

\* '11년 일본에서 2차 회의 개최 예정 ('10년 우리나라에서 1차 회의 개최)

○ 베트남 6Banks 사례\*를 참고로 EDCF 주재원 파견 지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현지 공여국 협의체 참여 확대

\* 베트남 전체 ODA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DCF, WB, ADB, AFD(프랑스), JICA(일본), KfW(독일)로 구성된 현지 협의체



## 5 국제개발논의에 대한 기여 확대

◇ G20 개발논의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UN·OECD 등 주요 국제사회 개발논의에 대한 기여 확대

□ (개발의제 후속조치) 우리나라 주도(Korea Initiative)로 채택된 G20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적 리더십을 발휘

① 9개 분야\*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G20 개발 실무그룹(WG)·인프라 고위급 패널(HLP) 논의에 적극 참여

\* ① 인프라 ② 인적자원 개발 ③ 무역 ④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⑤ 식량안보 ⑥ 성장복원력 ⑦ 금융소외계층 포용 ⑧ 국내재원 조달 ⑨ 개발경험 공유

② 개발실무그룹(WG) 공동 의장국\*으로서 개발의제 관련 G20 비회원국과의 협력 활동(outreach)을 강화하여 가교 역할 수행

\* 우리나라는 프랑스, 남아공과 함께 개발실무그룹(WG) 공동 의장국 수임

③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이론적 발전 및 구체적 실행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G20 개발의제 세미나」 등 개최

□ (HLF-4의 성공적 개최)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HLF-4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조”에서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논의 방향 설정\*에 기여

\* 범정부차원의 HLF-4 기획단을 설립하여 OECD DAC 차원의 의제설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G20 개발의제와의 HLF-4 의제 간 연계 추진

□ (국제 개발논의 참여 확대) UN, OECD DAC, 혁신적 개발 자원 논의 등 개발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개발경험 등에 기반한 기여 방안을 지속 모색

## 6 ODA 평가 역량 강화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에 따른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환류 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 체제 강화) 사후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성과 목표를 고려하는 **Project Cycle Management\*** 강화

\* EDCF를 통해 지원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사업관리가 중요

○ 사업 기획 단계(사업발굴·형성·심사)에서부터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시 활용 가능한 **명확한 성과지표**를 수립

□ (평가역량 강화) 실시조직과 독립된 평가조직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협력대상국 관계자 등의 참여를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현재 수는 경험기획실 내 평가반(4명) 형태로 구성

○ 소관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국별평가·주제별 평가 등으로 평가 대상을 다변화

□ (환류 시스템 구축) 사업별 심사보고서 작성시 유사 국가·분야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 수출입은행 내규(경험기금업무 취급규정) 개정 추진

○ 자체평가 및 소위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평가소위원회에 제출

○ 정책협의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대상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 Ⅲ. 다자원조(국제금융기구) 추진계획

#### 1 다자원조 정책 환경

- (국제금융기구 역할 확대) 경제위기로 국제금융기구, 특히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개도국들의 의존도가 심화
  - \* IBRD 용자 현황과 전망(억불) : ('08년)135 ('09년)329 ('10년<sup>예</sup>)440 ('11년<sup>예</sup>)330
  - 위기극복에 필요한 개도국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반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어려워진데 기인
  - 용자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자본증액·양허성 자금 등 재원확충 노력 강화(G20 합의사항)
  
- (한국의 위상강화) G20 의장국 수임, IMF·WB 지분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책임감은 크게 제고
  - \* 우리 지분(%) : (IMF)1.4(18위) → 1.8(16위), (WB)1.0(22위) → 1.6(16위)
  - 글로벌 이슈의 수용자 지위에서 벗어나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조율하는 조정자 지위로 위상이 확대
  
- (국제사회의 요구) 국제금융기구 역할증대, 한국의 위상등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 등의 확대가 불가피
  -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MDB의 자본증액이 마무리되면서,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출자 의무 발생
  - 높아진 국가 위상과 책임감에 비례하여, 빈곤감축·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 2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 (규 모) MDB 증자·WB 지분확대·G20 서울 개발의제 이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5~8년간 대규모 재원 소요 전망

\* MDB 자본증액에 따른 한국의 출자 부담(납입자본 기준) : WB 1.72억불, ADB 1.7억불, AfDB 0.2억불 등 3.6억불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전략과 국제기구별 지원에 따른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자원조 예산 세부규모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 < '11~'15년 다자원조 지원규모 추정치(단위:조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ODA	1.6	1.8	2.4	2.9	3.5
다자원조	0.4	0.5	0.7	0.9	1.1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GNI 증가율 5% 가정

\*\* 국가재정 여건, 원조수요, 사업집행성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재원 조달) 국제금융기구 증자에 따른 대규모 출자소요 등을 고려할 때 예산과 외환보유액을 병행하여 활용

- (추진 전략)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하여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

- (출 자) '09~10년중 합의된 WB 지분개혁과 다자개발은행 증자에 따른 출자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 (양허성 자금 출연) 지분 확대 등 국제금융기구 내 강화된 위상을 고려하여 양허성 자금 출연을 점진적으로 확대
- (신탁기금 출연) 국제금융기구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신탁기금 출연 전략을 마련·실행

## 2-①. 국제금융기구 출자 전략

- (기본 방향)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분확대 노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는 지분에 의해 투표권이 결정되며, 상임이사 진출 등도 지분에 의해서 결정
    - \* UN에서의 의사결정이 1國 1票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반면, WB 등 국제금융기구는 1株 1票로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권을 행사
  - 국제금융기구내에서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할수록 향후 국제금융기구 인력진출 등에 레버리지로서 활용 가능
- (출자 계획) WB·AfDB·IDB 등 다자개발은행이 '09~10년중 합의한 자본증액을 차질없이 이행
  - WB 등 다자개발은행 증자에 따른 현금납입 자본규모는 약 4,143억원(3.6억불) 수준으로 예상(총 자본규모는 약 8.5조원)
  - 납입자본은 5~8년에 걸쳐 납입할 예정
    - \* WB·AfDB·IDB는 100% 교환성 통화로 납입, ADB는 40%만 교환성 통화로 납입(60%는 자국통화로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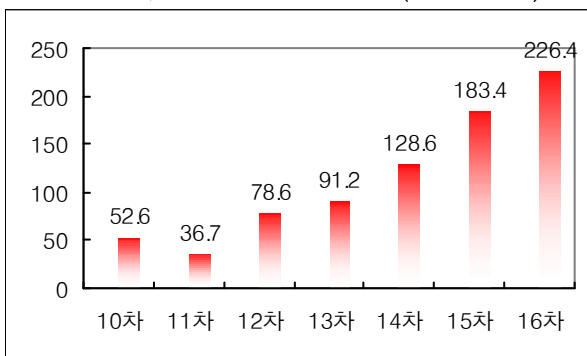
### < MDB 증자에 따른 연도별 출자금 납입계획안(억원) >

기구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IBRD	368	368	368	368	368	-	-	-	1,840
IFC	138	-	-	-	-	-	-	-	138
ADB	391	391	391	391	391	-	-	-	1,955
IDB	0.1	0.1	0.1	0.1	0.1	-	-	-	1
AfDB	26	26	26	26	26	26	26	28	210
합계	924	786	786	786	786	26	26	28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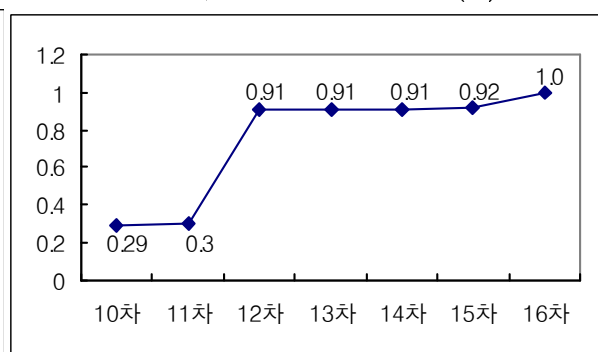
## 2-②. 양허성 기관 출연 전략

- (기본 방향)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지분에 맞게 양허성 자금에 대한 출연을 점진적으로 확대
  - 한국이 과거 양허성 자금으로부터 받은 수혜를 환원하고 국가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격제고에 기여

한국의 IDA 출연 규모(백만 SDR)



한국의 IDA 출연 비중(%)



\* IDA는 3년 단위로 재원을 보충하며 15차는 '09~11년, 16차는 '12~14년임

- (출연 계획) IDA 분담율 상승 등으로 향후 양허성 출연금은 연 2,200억원 수준이 될 전망
  - IDA 분담율은 IBRD 지분 증가(1.0%→1.63%)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추진
  - AfDF(제12차 분담율 1.317%), ADF('11년 협상) 등도 분담율 조정 및 전체적인 부담규모 증가 전망

### < '11년 이후의 양허성 자금 출연금 추정(억원) >

양허성 자금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IDA	865	1,533	1,533	1,533	1,686	7,150
ADF	362	362	398	398	398	1,919
AfDF	316	316	316	348	348	1,643
FSO*	12	-	-	-	-	12
<b>합 계</b>	<b>1,555</b>	<b>2,211</b>	<b>2,247</b>	<b>2,279</b>	<b>2,432</b>	<b>10,724</b>

\* Fund for Special Operation : IDB 역내 개도국 지원 특별기금으로 '11년 최초 참여

## 2-③. 신탁기금 출연 전략

- (기본 방향) 신탁기금 출연은 국가전체의 ODA 전략에 맞게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
  - G20 의장국 수임, WB 등 우리 지분을 상승에 부합하도록 출연규모를 확대하여 우리의 역할 강화
- (출연 계획) 신탁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예산으로 출연하는 신탁기금의 비중을 확대
  - 신규 신탁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하여 '13년 이후 전액 예산으로 납입 전환
    - \* 현재까지 약 1.3억불 규모의 신탁기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출연했으며, '11년중 850만불, '12년 845만불, '13년 0.1만불을 출연할 예정
  - WB와 ADB의 협력을 강화하되, AfDB·IDB 등과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구축 강화를 지원

### < 신탁기금 출연 현황 및 계획(단위: 억원) >

재원 구분	'09년	'10년	'11년
예산	251	504	684
외환보유고	480	252	98
합 계	731	756	782

\* 기준환율 : '10년 1,230원/\$, 11년 1,150원/\$

- (기구별 출연 전략) 국제금융기구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신탁기금 추진 전략을 마련·실행
  - (WB) 빈곤감축·기후변화·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

- **(ADB) 역내 MDB로서 WB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필요**
  - 인프라 등 역내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역내 진출 및 **ADB내 인력진출 확대** 등과의 연계 강화
- **(AfDB·IDB·EBRD)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중남미·동유럽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신탁기금 추진전략을 수립·실행(출연규모 점진적 확대)**
  - \* IDB : 지식협력기금, 중소기업개발기금, AfDB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 **EBRD의 경우 향후 통일에 대비, 북한지역의 안정적 체제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사전에 확보하는 점도 고려**
    - \*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EBRD 초기체제전환국가 지원기금
- **(분야별 출연 전략) G20 합의사항의 이행,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조달시장 진출 지원 수단 등으로 활용**
  - IT 등 국내 기업들이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 **(사후 관리) 우리가 출연한 신탁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
  - 국제금융기구와 정례적으로 「신탁기금 정책협약」을 개최하여 신탁기금 활용의 목적 적합성·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
    - \* 10만불 이상의 신탁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 정부에 승인을 요청
  - **프로젝트 현장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를 강화 방안 마련**



## IV. 원조 기반 구축

### 1 개발경험 콘텐츠 작성

◇ KSP 모듈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참여하에 '12년까지 100개 개발경험 사례를 콘텐츠화

\* KSP 모듈화 추진 계획 : ('10) 20개 → ('11) 40개 → ('12) 40개 사례 정리

\*\* 사례별 콘텐츠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총체적 개발경험을 정리한 자료를 '11년중 작성

□ (개발경험 콘텐츠 구축) 매년 「KSP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익년도 개발경험 콘텐츠화 주제를 선정

○ 「KSP 추진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주제 및 담당기관 선정, 콘텐츠 작성 과정 등에서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

\* 주제별 담당기관은 소관 부처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콘텐츠 작성 과정에서 분야별 T/F에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

○ 모듈화 표준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작성('11년 1/4분기)하여 콘텐츠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중간 워크숍 개최·평가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결과물을 지속 관리

□ (개발경험 콘텐츠 활용) KSP 사업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 국제협력사업(초청연수, 컨설팅 등)에 개발경험 콘텐츠 적극 활용

○ 정리된 개발경험 중 국제기구(MDB) 및 개도국의 관심이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동 컨설팅\* 추진

\* 지역별로 2~3개 시범국가를 선정하고 ① KSP 자금, ② 국제기구 내 한국 신탁기금(Trust Fund), ③ 국제기구 자체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

○ 개발경험 콘텐츠 및 사업기술 목록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야별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한 원조 모델\* 개발

\* 새마을 운동(농촌 종합개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자정부 구축 등

## 2 ODA 집행기관 역량 강화

◇ 대규모 ODA 확대계획에 대응하여 수출입은행(EDCF) 조직·인력을 개편하여 선진 원조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

□ (기본방향) EDCF 정책·평가 역량 및 현장 기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등을 목표로 조직·인력 개편 추진

① DAC 가입 등에 따른 선진 원조 전략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 역량\* 강화

\* DAC 회의 참석, 국제개발협력 이슈와 EDCF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등

② 국제규범에 따른 성과중심 관리, 유·무상 통합 평가체제 시행 등에 대응하여 평가역량 강화

③ 협력대상국 중심의 원조체제에 맞추어 현지 사업 발굴·관리 등을 위한 해외 사무소 증설 등 현장 중심 기능\* 확대

\* 사업발굴, 구매관리, 현지 공여국 협의체 참여 등 역할 수행

④ 선진 원조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개발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기능 강화

□ (추진일정)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증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조직·인력개편 실시

○ ('11년) 단일 사업부서를 2부 체제로 확대·개편하고 현지 주재원 증원, 평가실 독립 등을 통해 실행역량 보완

○ ('12년 이후)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역량 강화

### 3 ODA 홍보 강화

◇ 범정부차원의 통합 홍보체계를 중심으로 EDCF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 및 인식 제고에 주력

□ (홍보재원 확대) 상대적으로 ODA라는 인식이 낮은 EDCF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재원\*을 지속 확충

\* EDCF 개발협력인식증진비 : ('10년) 2.5억원 → ('11년) 4억원

□ (그룹별 홍보전략) EDCF와 유대관계가 미흡했던 NGO, 학계, 언론 등을 중심으로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강화

구 분	홍보전략
언 론	-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연합뉴스 등 언론매체와 업무협약 체결
시민단체 개발NGO	- 국내개발 NGO의 EDCF사업 참여 확대, NGO 개최 행사 지원 등을 통해 NGO 등과의 우호적 관계 정립
학 계	- 학계대상 EDCF 인식증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ODA 관련 세미나 개최 - 민간 협력을 통해 전문 연구저널 발행
국 회	- EDCF 사업현장 방문, 협력대상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EDCF에 대한 인식증진 추진
업 계	- PPP 확대, 국제 입찰수주지원을 위한 설명회 등 개최

□ (“유상” 표현 변경) 주요 언론·발간물 등에서 사용되는 “유상원조” 표현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으로 대체하여 부정적 이미지 개선

○ 아울러, EDCF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조건이 우수\*한 점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

\* 지원조건('09년) : (금리) 0.1% (상환기간) 38.5년 (거치기간) 12.0년 → 증여율 87.4%

□ (국제 홍보 강화) 주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우리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제고 추진

\* '11년중 주관기관(재정부·외교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추진

◇ ODA 규모 확대 및 민간부문 관심 증대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개발 컨설팅 산업 육성) KSP, EDCF 사업 등에 대한 국내 컨설턴트의 참여를 지속 추진하고, 초기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개발컨설턴트 협회(가칭)\*」 설립 지원

\* 국제개발컨설팅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입찰지원, 컨설턴트 교육·훈련 기능 등 담당

○ KSP 입찰제도 개선, 지원단가 현실화 등 시장여건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 우수한 컨설턴트의 사업 참여 유도

○ EDCF 사업 기획·타당성 조사·프로젝트 관리 및 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전문인력 Pool 구성)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전문가\*, 분야별 컨설턴트, 해외근무 경험자 등에 대한 인력 Pool을 구축하고 기술협력·정책자문 인력으로 활용

\* 원조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정보가 부족한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문가 보강

○ MDB 신탁기금, EDCF 협조융자 및 KSP 공동 컨설팅 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내 인력의 국제기구 사업 진출을 통한 전문성 제고 추진

□ (집행기관 전문성 제고) 경력관리를 통해 EDCF 담당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 JICA, AFD 등 해외 주요 원조기관에 대해 3개월 내외의 OJT 파견 추진

---

2011년~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 무상협력 / 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

---

2010. 12. 21

**외 교 통 상 부**

# 목 차

I. 기본 방향 .....	35
1 중기(2011-2015) 전략목표 .....	35
2 중기 전략목표 추진방향 .....	36
II. 양자 무상원조 추진계획 .....	39
1 재원규모 및 운용 계획 .....	39
2 지역별 추진전략 .....	43
3 원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46
4 원조사업별 효과성 제고 .....	56
5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 .....	59
III.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추진계획 ....	61
1 재원규모 및 운용 계획 .....	61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추진전략 .....	63
3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원조의 효율성 제고 ...	66

# 목 차

## IV. 긴급구호 ..... 67

**1** 해외긴급구호예산 확대 ..... 67

**2** 효율적 긴급구호시스템 운영 ..... 68

**3**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추진 ..... 68

## V.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69

**1** 국제원조규범 준수 및 형성에의 적극적 참여 ..... 69

**2**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 71

**3**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 적극 이행 ..... 72

**4**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 73

# I. 기본 방향

## 1 중기(2011-2015) 전략목표

### < 6대 전략목표 >

- ① 2015년 MDGs 달성에의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② “자립성장” 을 통한 “공정한 지구촌” 형성
- ③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 ④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범분야적 보편적 가치 지향
- ⑤ 선진 원조규범 추구 및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 ODA 선진화 실현
- ⑥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통한 국격 및 소프트파워 제고



## 2 중기 전략목표 추진방향

전략목표

### ① 2015년 MDGs 달성에의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추진방향

- MDGs 달성을 위한 노력 확대
- MDGs 달성성고가 특히 저조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
- 사업지역, 내용 선정에 MDGs 달성 현황을 주요 고려요인의 하나로 반영

전략목표

### ② “자립 성장” 을 통한 “공정한 지구촌” 형성

추진방향

- 협력대상국의 자립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
  - \* 협력대상국 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의 발전 노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5대 중점분야 사업으로 ① 교육 ② 보건 ③ 공공행정 ④ 농림수산 ⑤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

전략목표

### ③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추진방향

-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국제사회의 취약·분쟁국가의 거버넌스 강화 지원 노력에 동참
  - ※ 취약국가란 정책적 의지 또는 능력의 부족으로 자국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
  - OECD/DAC 취약국 정의 및 비공식 리스트(43개국) 잠정적용

#### 4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범분야적 보편적 가치 지향

추진방향

-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가치규범을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충분히 반영
- (녹색 ODA)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포함 협력대상국의 녹색 성장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인권 및 양성평등) 협력대상국 국민의 인권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5 선진 원조규범 추구 및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ODA 선진화 실현

추진방향

- 파리선언 등 원조효과성 규범 및 DAC 원조 지침과 권고 이행
  -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상호책임성” 및 “결과중심 관리” 등 파리 선언 원칙 이행 노력
  - 비구속성 원조 확대, 환경, 빈곤, 성평등, 취약국가, 인도적 지원 등 관련 DAC 지침과 권고를 단계적으로 도입
- 무상원조 사업간 중복성·분절성 최소화 및 관련기관 전문성 활용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현지 ODA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 발굴·시행·홍보·평가 관련 협의·조정
  - 무상원조 집행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여타 시행기관의 역량 강화

- 협력대상국, 여타 공여국, 비정부기구(NGO), 기업,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G20 개발의제**의 이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9개 주요분야의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에 있어 기존 사회·인간 개발 노력과의 조화 및 상호보완성 강화
- ※ 9개 주요분야 : 인프라 투자확대, 무역, 식량안보, 인적자원 개발, 국내 개발재원 확충, 성장복원력,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개발경험 공유, 금융소외계층 포용

**⑥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통한 국격 및 소프트파워 제고**

- 중기 전략목표 추진과 병행하여 **궁극적 국익 증진**을 위해 **외교적 고려에 기반한 ODA**를 조화롭게 시행
  -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국익과 중장기 ODA 계획 수립을 통해 반영된 ODA 본연의 목표간 조화 추진
- 중장기 ODA 계획 수립시 외교적 고려를 강화하여 ODA를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 축으로 격상
  - 국격 및 소프트 파워 제고에 기여

## II. 양자 무상원조 추진 계획

### 1 재원 규모 및 운용계획

- (범 위) 외교통상부(KOICA) 및 무상원조 시행기관에서 집행하는 양자 무상사업

\* '다자성 양자(Multi-Bi)사업'은 다자원조 재원에서 집행

- (규 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기본골격\*을 기반으로, '11-'15년간 약 4조 6천억원(추정치)의 자금 집행 추진

\* ODA 확대 계획, 양·다자 70:30 내외 / 유·무상(순지출) 40:60 내외

< '11~'15년 무상원조 지원규모 추정치(단위: 조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ODA	1.6	1.8	2.4	2.9	3.5
집행	0.6	0.7	0.9	1.1	1.3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GNI 증가율 5% 가정

\*\* 국가재정 여건, 원조수요, 사업집행성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역별 재원규모)

아 시 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50% 내외	25% 내외	10% 내외	10% 내외	5% 내외

-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재원규모) 양자원조의 70% 수준

## 1-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양자 무상원조 재원의 70%를 우선배분

- 지역별 예산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각국별 상황에 맞게 차등 배분
  - 국별 중점 지원 분야 및 사업은 CAS 수립을 통해 확정

□ 국별 재원 배분 기준(안)

- MDGs 달성 현황 및 협력대상국 빈곤도
  - 최빈국 및 분쟁·취약국에 양자 무상원조의 40% 내외 집중
- 최근 3년('07~'09)간 국별 양자 무상원조 배분 추이
- 각국에 대한 ODA 공약 이행

### <주요 ODA 공약>

한-ASEAN 개발협력 정책문서	- '15년까지 對ASEAN 무상원조를 '08년 대비 3배 확대
제3차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지원사업	- ('13-'17년) 규모 2배 확대 : 총 1천만불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	- '12년까지 對아프리카 무상원조를 '08년 대비 2배 확대
파키스탄 재건 지원 서약	- '09-'12년간 2천만불
방글라데시 지원 서약	- '11-'13년간 3천만불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서약	- '08-'12년간 2억불

- 우리나라와의 양자 협력관계

## 1-②. 기타 재원의 탄력적 운용

- 양자 무상원조 재원의 30%는 탄력적으로 운용
- 기타 재원 운용 기준
  -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우선적 고려
    - 전후 취약국가를 위주로 국제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건지원대상국'\*을 선정·관리하고 기존 지원 서약을 충실히 이행
      - 아프간 PRT를 통한 재건복구 사업 시행을 통해 국제 사회의 아프간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
    -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정부 서비스 역량이 취약한 국가 및 만성적 인도적 위기에 처한 국가 우선 지원
  - 여타 일반 개도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기술협력사업 위주로 지원
    - 초청연수 등 적은 재원으로 효과적 발전경험 공유가 가능한 방식 모색

## 2 지역별 추진전략

- \* 급격한 여건 변화시 5년 이내라도 지역별 정책기조를 변경·수정 가능
- \* 중점 지원분야는 각 중점협력국별로 국별지원전략(CAS) 수립을 통해 확정

### 가. 아시아

- (기본방향)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 유지
  - 신아시아외교, 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대ASEAN 공약 사항\* 이행 등을 위해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서아시아지역 최빈국·취약국에 대한 지원도 점진 확대
    - \* 한-ASEAN 개발협력 정책문서('15년까지 對ASEAN ODA 2배(무상 3배) 확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지원,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한 메콩지역 개발협력 확대 등
  -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 국별·지역별 개발격차 및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한 지원방안 모색
- (재원배분) 양자 무상원조의 50% 내외 지원

## 나. 아프리카

- (기본방향) 국제사회의 MDGs 달성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최빈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점진 확대
  - 對아프리카 ODA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프리카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
    -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2009~2012)\*’ 성실 이행
      - \* 2012년까지 對아프리카 ODA를 2008년 대비 2배 확대 등
    - 무스코카 이니셔티브(Muskoka Initiative), 혁신적 개발 자원(항공권 연대기금) 논의 등에 적극 참여
- (재원배분) 양자 무상원조의 25% 내외 지원

## 다. 중남미

- (기본방향) 우리의 개발경험 및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증가 등 개발협력 수요 및 자원·인프라 분야 경제협력 수요에 대응
  -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국별·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원조 시행
  - 對아이티 재건 복구 지원 서약\* 성실 이행
    - \* 우리나라는 對아이티 중장기 재건 복구를 위해 다년간 1천만불 지원 서약
- (재원배분) 양자 무상원조의 10% 내외 지원



## 라. 중동·CIS

- (기본방향) 주요국의 정부역량 강화·시장경제 기반구축 및 안정화 지원
  -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이라크·팔레스타인 등 역내 취약국가의 전후 재건복구 지원도 병행
    - \* 이라크('08~'11간 1억불), 팔레스타인('11~'15간 2천만불)에 대한 지원 서약 이행 필요

- (재원배분) 양자 무상원조의 10% 내외 지원

## 마. 오세아니아

- (기본방향) 중점협력대상국(솔로몬군도)에 대한 집중적인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원조 성공사례 구축
- (재원 배분) 양자 무상원조의 5% 내외 지원

### 3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3-①. 국별지원전략(CAS) 수립 및 현장 중심 사업발굴 강화

##### 가. CAS 수립

- (추진 일정) 20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
  - 유·무상 공통으로 중요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CAS 수립
    - '10년중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대상 CAS 수립에 착수
    - '11년 이후 수립 계획은 각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해당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연도별 CAS 수립 계획을 해당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각 국가별 CAS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추진절차) CAS 수립 절차 및 주요 지원 분야 등은 총리실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베트남 CAS 작성례 및 여타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통일안 마련·추진
  - CAS 작성 과정에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의견 반영
- (CAS 활용 원칙) 해당 협력대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의 발굴·선정·시행은 CAS에서 정한 전략에 따라 실시
  - 해당국 지원 예산은 CAS내 중점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적 필요에 따른 사업 등 예측이 어려운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국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원조 방식** 모색

\* CAS가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 규모 지속 확대 추진

## **나. 현장 중심 사업 발굴 강화**

### **□ KOICA 해외사무소 현장 인력 확충**

- KOICA 인력 증원, 현지 전문인력 채용 확대, 청년 ODA 인력 파견(KOICA Young Professional)\*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사무소 인력 확충

\* 향후 5년간 연간 400명(인원당 6개월간)의 청년 ODA 인력을 KOICA 해외 사무소에 파견 추진

### **□ 사업발굴 예산 확대**

- '15년까지 사업발굴 예산을 국별 예산의 **3.5%** 수준으로 확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별 예산 대비 사업발굴예산 비율	1.76%	2.1%	2.5%	2.8%	3.1%	3.5%

### **□ 재외공관 중심 현지 ODA 협의 강화**

- '10년 말부터 중점협력대상국(및 주요 개도국) 공관에 '현지 ODA 협의체' 구성·운영
  - 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행기관별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회의 개최
  -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연계·조화된 사업의 발굴 추진

### 3-②. 사업 선정방식 개선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협의 강화
  - 무상원조 사업 선정 이전에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무상원조 시행계획 협의·조정
    - 무상원조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부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관별 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
  - 동 협의회를 통해 무상원조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현지 ODA 협의체'를 통해 사업 발굴·추진·평가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강화
- 개별 부처와 KOICA간 협조 강화를 위한 KOICA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 관계기관 전문성 활용 제고를 위해 KOICA 이사회 개편, 입찰 절차 간소화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
  - 2011년 상반기 중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히 시행
- 무상원조 사업간 중복 방지 노력 지속 추진
  - 연간 시행계획 작성시 사업간 중복성 방지·연계성 제고에 집중
    - 사업 분절화에 따른 고비용 소규모 사업 지양
    - 소규모 무상사업의 경우, 독자적 추진보다는 CAS 및 여타 대규모 무상원조 사업 등과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무상원조 예산 일원화가 가능한 사업 분야 검토

### 3-③. 유·무상 연계사업 및 패키지형 사업 추진

- 재외 공관의 '현지 ODA 협의체' 및 각 시행기관별 발굴사업 등을 종합하여 중점 협력대상국에서 유·무상 연계 및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시행
  - (추진일정) '11년부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들간 협의를 통해 주요국별 시범사업 시행 추진
  - (추진방식) ODA 선진화방안에 적시된 예시 모형을 참조 하되, 현지 상황 및 수요에 맞는 연계 사업 발굴
    - 각 시행기관은 기시행사업을 기반으로 한 유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 발굴·제시
    - 유·무상 연계 및 패키지형 사업 발굴시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적극 검토
  
- CAS 수립시 각 협력대상국별 상황에 맞는 유·무상 연계 및 패키지형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 각국별 상황 및 여건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연계방안 마련

### 3-④. 민관협력 사업 확대 추진

#### □ 민관협력사업 예산 확대

- NGO 및 민간기업(PPP)과의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15년까지 10배 수준으로 확대 ('10년 90억원 → '15년 900억원)
- 사업예산 확대에 기반하여 '11년부터 NGO 및 PPP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 확대·조정\*  
\*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 □ 민관협력사업내 각 사업별 비중조정

-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사업」, 「PPP 사업」 및 「NGO 역량강화」 비중 확대
  -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개발협력사업 참여가 보다 확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민간단체 지원방식의 다변화

- 개발NGO들의 개도국 현장사업뿐만이 아닌 민간단체, 학계(대학, 연구소 등)의 개도국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 확대
- 민간단체 역량에 맞는 선별적 지원체계 구축
  - 소규모 신생단체와 전문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단체를 구분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 □ 민관협력사업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 재외공관(KOICA 해외사무소)을 통한 현장 관리 강화
  -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외공관에 단계별 사업 진행상황 보고
-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국별, 외부 평가도입
-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 NGO 및 민간기업(PPP)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정비

### 3-⑤. 협력대상국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

####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절차 개선

##### ○ 협력대상국과의 ODA 정책협의 확대

- CAS 수립·개정 일정에 따라 ODA 정책협의 개최 확대·정례화

#####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 관련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 각 기관이 협력대상국과 원조사업 협의시 △공관에 기본사업 추진방향을 통보하고, △협의결과를 공관 및 외교부와 공유

\* 'ODA 시행 관련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지침을 토대로 시행

#### □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수립 역량 강화 및 개발전략과의 조화 추구

##### ○ 정책자문, 정책입안자 연수 및 관련기관 역량 강화 등 지원 확대

##### ○ 「빈곤감소전략(PRSP)」 및 「경제개발전략」 관련 협력 대상국과의 협의 강화 및 '공여국 협의체' 참여

#### □ 예측가능성 제고

##### ○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립될 CAS에 지원전략, 중기 재원 배분계획, 세부프로그램을 적시

- 중기 재원배분계획은 '지역별·국가별 재원배분계획안'에 근거한 추정치 활용

#### □ 협력대상국의 자립적 발전 지원 강화

##### ○ 협력대상국의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원조를 우선 시행하여 협력대상국의 자립 능력 배양

- (인적 역량강화) 교육, 보건, 농촌개발(식량안보)분야 집중지원
- (제도적 역량강화) 개발협력 콘텐츠에 따른 주요 사업을 시행하여 각 분야별로 개도국의 제도적 역량 배양

### 3-⑥. 무상원조 시행기관 역량제고

####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량 강화

\*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서 KOICA의 브랜드 가치 제고 (USAID, JICA 등과 같이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기관으로 육성)

##### □ KOICA 인력 확대 및 재배치

-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 인력 증원 규모를 산출하고, 각 연도별 증원 계획을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
- 인력 증원 및 재배치를 통해 KOICA 해외사무소 인력 확충

##### □ KOICA 조직 및 업무 개편

-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부서로 구분된 KOICA 본부 조직을 지역별 체제로 개편
- KOICA 본부-사무소간 업무 조정
  - 사업 발굴·집행 관련 현장(KOICA 해외사무소) 권한 강화
  - KOICA 본부는 △ODA 정책 및 지역연구, △사업 모니터링·평가, △부처의 ODA 집행지원(ODA교육, 연수교수법 개발 등)등 기능 강화

##### □ World Friends Korea 사업 효과성 증진 및 부처간 사업 일원화를 위해 WFK Center 설립 추진

#### 나. 여타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역량 제고

##### □ 관계 부·처·청·기관에 대한 ODA 교육 시행

- KOICA ODA 교육원을 통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정부의 ODA 정책방향 및 OECD DAC 규범에 대한 인식 공유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분과협의회 포함) 등 계기에 우리 정부의 주요 ODA 정책방향 및 OECD DAC 규범 관련 사항 공유
- \* 외교부(KOICA) 주관으로 관계기관 ODA 담당자 워크숍 개최 추진

##### □ KOICA 무상원조 사업 시행시 관계기관의 전문성 활용도 제고



### 3-⑦.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ODA 역량 기반 강화

-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KOICA ODA 교육원을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ODA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확대·추진
  -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국별·분야별·직능별 전문가 양성 및 국제원조규범·사업관리 교육을 2011년 중 시행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직무분석을 통해 국제개발 컨설턴트 인증·자격제도 및 체계적 인력 Pool 구축·관리
      - \* 정책입안·자문, 사업수행 기술자문, 평가 등을 위한 한국국제개발컨설턴트 협회 설립 지원 중
    - ODA 시행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전문교육 및 비구속화 관련 교육 등을 2011년 중 실시하고 이후 ODA 규범 관련 교육 확대
  - 국내 여타 ODA 시행기관, 국내외 학계 및 연구소, 민간 단체의 전문성 및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별·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시행, 이를 통한 ODA 교육원 역량 강화 추진
    - 시행기관, 학계 및 연구소, NGO와의 공동교육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 해외원조단체 협의회와의 공동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시행
- (연구기능 강화)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체제 확대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평가 등 관련 연구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 및 연구결과와 실무간 연계 시스템 구축
    - \* KOICA내 설립 후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
    -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 대학원·연구소, 일본 FASID(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ies),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등 국외 연구소 등과의 협력 MOU 체결 및 공동연구, 위탁연구, 인적교류 등 추진

### 3-⑧. 무상원조 평가 및 환류 강화

#### □ Two-Track ODA 사업 평가 실시

- (평가소위원회 평가) ODA 발전전략 및 모델 정립, 통합평가 시스템 정착을 위해 대표성 있는 ODA 사업 평가 및 ODA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결과 심의

\* '10년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09.12월 작성)에 근거한 시범평가 실시

- (자체 평가) ODA 시행기관별로 소관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소위에서 동 자체평가 결과 심의
  - 외교부는 무상원조사업 평가 협조기관으로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연간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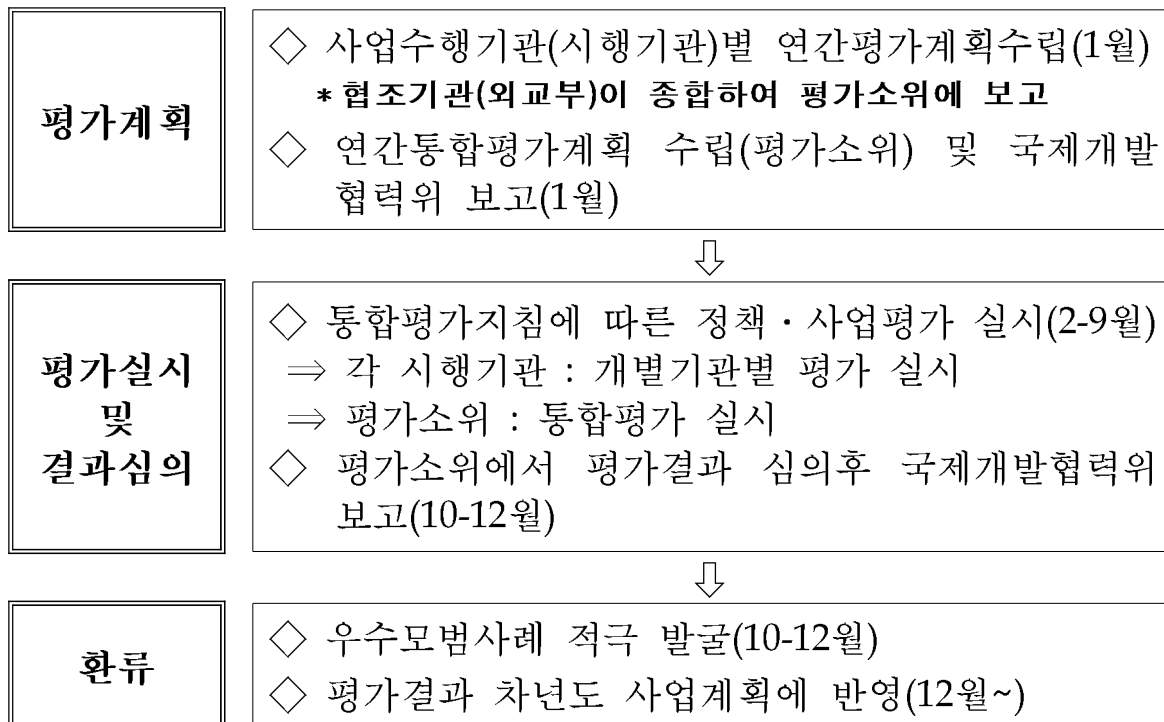
#### □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항목 등 관련 보완작업 후 통합평가시스템을 확정·운영

#### □ ODA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 시행기관의 평가결과는 평가소위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통합평가지침에 근거, 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수립에 반영

## □ ODA 사업평가의 연간 운영 계획



## □ ODA 사업 시행부처 평가역량 강화

- 무상원조 시행부처별 상이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통합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도록 ODA 사업평가 역량 강화 도모
- KOICA 평가실을 중심으로 ODA 사업평가 교육 및 자문 지원

## □ ODA 사업평가의 다각화를 위한 수혜자 평가 도입

- ODA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만족도, 의견 등)를 조사, 평가 함으로써 우리 ODA 사업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시각 반영
- 향후 부처별 자체평가 및 평가소위 평가시 수혜자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 추진 검토
- KOICA 평가실 및 수혜자 평가 기 실시기관 등의 협조 하에 수혜자 평가작업의 정교화 추진

## 4 원조사업별 효과성 제고

### 가. 개발조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개발조사 사업 비중 제고

- '09년 기준 KOICA 협력사업비의 2.7% 수준인 개발조사 사업 비중을 2015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단, 2015년까지의 목표 수치는 협력대상국 수요에 따라 조정

#### □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 기관간 협력네트워크(ODA 네트워크 회의, EDCF-KOICA 정례회의 등)를 통해 진행중 또는 진행 예정인 개발조사 사업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협력대상국이 우리 ODA를 통한 본 사업 진행 희망시 우선 지원하는 방안 검토
  - KOICA 프로젝트 사업으로 반영 또는 EDCF 지원 요청

### 나.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사업 사전조사 및 검토 강화

- 협력대상국 개발 계획 및 CAS와의 연계성, 협력대상국의 유지 관리계획 및 역량의 사전 확인 등 실시

#### □ 후속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사업 선정시 기지원 유·무상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고려

#### □ 사업 관련 협력대상국의 역량 강화

-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 프로젝트 사업 사후관리 강화

- 시행업체 책임 하에 사업별로 1~5년간\* 하자 보수 시행
  - \* 대규모 토목공사(5년), 일반 건축(2년), 물품지원(1년) 등으로 구분 시행
- CAS 수립 등 주요 계기시마다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가 지원(기술협력 사업 등)이 필요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파악·지원

## 다. 초청연수 사업 시스템 개선

### □ 사업 추진 일원화

- 무상 주관기관의 총괄·기획 기능 강화
  - 연도별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각 시행기관과 공유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초청연수분과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연수사업간 연계성 제고
  - 중복사업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초청연수분과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 □ 예산 일원화(중장기 검토)

- 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예산 통합 전례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검토

### □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

- 다년간 연수과정 확대
  - 초청연수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개도국의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
- 연수효과의 현지 확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후관리 활동 강화

## **라. 봉사단 파견 효과성 제고**

### **□ WFK 사업 통합 운영 시스템 확립**

#### **○ 해외봉사분과협의회 및 WFK 실무 T/F 수시 개최**

- 각 기관별 사업\*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성 강화

※ KOICA 봉사단 및 종장기 자문단, 행안부 인터넷 청년봉사단, 교과부 대학생 해외봉사단 및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지경부 퇴직전문가 사업

### **□ WFK 사업 통합 효과 극대화**

#### **○ 단기 과제 (2012년까지 추진)**

- 통합 사업계획 수립(2011년)
- WFK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모집·선발·홍보 창구 일원화(2011년)
- WFK 단원에 대한 공통 교육 콘텐츠 마련(2012년)

#### **○ 중기 과제 (2015년까지 추진)**

- WFK 단원 교육인프라(WFK 통합센터) 확충 및 훈련 교관·강사 통합
- 장기 및 중단기 봉사단별로 적정 관리인력 증파계획 수립
- WFK 통합 사업평가 방식 마련
- 귀국 후 지원체계 지속 개선 (취업, 학업, 현지정착 등 지원방안 마련)

## **마. 새로운 원조 사업 방식 검토**

### **□ 프로그램 지원, 일반예산 지원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국제사회에서 실행 또는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지원 방식의 도입 검토**

- 여타 공여국 대비 우리 원조 규모 및 인프라 확충 정도를 보아가며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

## 5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

### 가. ODA 사업에 활용가능한 사업·기술 목록화 (Inventory)

- **소부처청(산하기관 포함)은 소관분야(8대 분야 포함) 관련 사업 기술 목록을 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1년 상반기 중 정리·제출**

\* 8대 분야 :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경, 산업에너지

- ①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② 실제 ODA 사업에 활용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사업기술(프로젝트, 기자재 지원, 기술협력 등) 목록을 정리

- 부·처·청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리

\* KOICA와 수은(EDCF)도 그간 원조사업경험을 토대로 자체정리 후 제출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및 사업·기술 목록 선정**

- 외교부는 가이드라인을 '11년 3월까지 확정·배포

### 나. 개발협력 콘텐츠 감성분야

- 외교부(KOICA), 재정부(수은(EDCF)), 문화부간 협의 하에 감동적 원조사례 및 한국적 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11년 상반기 중 수립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및 구체 방안 수립

## 다. 개발협력 콘텐츠를 이용한 원조 모델 개발

### □ 새마을운동 관련 사전 시범사업 시행

- 새마을운동(농촌 종합개발) 분야는 '10년 통합평가 결과에 따라 '11년중에 시범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추후 전체 원조 모델 작성시 수정·반영
  - '12년도 시행계획에 새마을운동 모델 시범사업 계획 반영 검토

### □ 원조모델 개발

- '11년중 개발경험 및 사업기술 목록을 완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12년 상반기중 분야별 원조모델 개발
  - 개발된 원조모델은 각 협력대상국별 특성에 맞추어 CAS에 반영

### □ 무상원조의 경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및 구체방안 수립



### Ⅲ.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추진계획

#### 1 재원규모 및 운용 계획

- (범 위) 외교통상부(KOICA) 및 무상원조 시행기관에서 집행하는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사업\*

\* '다자기구를 통한 양자지원사업(Multi-BI)' 포함

- (규 모) 우리의 경제력(세계 GNI 대비 2%) 및 UN/PKO 정규 예산분담금(2% 이상)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개발 관련 UN 및 기타 국제 기구에 대한 기여 확대

< '11~'15년 다자원조 지원규모 추정치(단위 : 조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ODA	1.6	1.8	2.4	2.9	3.5
다자원조	0.4	0.5	0.7	0.9	1.1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GNI 증가율 5% 가정

\*\* 국가재정 여건, 원조수요, 사업집행성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는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간종합시행계획에 반영

- 중점분야, 중점협력대상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지원을 증대하되, 그간 예산제약으로 미미했던 분야/기구에 대한 고려 병행

#### ○ 중점분야

- MDGs 달성, 범지구적 개발문제,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 노력, 여성·인권 등 보편적 가치

○ 중점협력대상 국제기구

- UNDP, UNICEF, WFP, Global Fund, UN Women 등 대표적인 기구/기금

□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은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 이행 등을 위해 ODA 선진화 방안의 기본골격 범위 안에서 적정 규모로 운영

○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

○ 국제기구의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 이행에 필요한 자원 제공

- UNDP, ILO, UNESCO, WFP, OECD 등

○ 다자간신탁기금 참여 또는 국제기구와의 양자적 신탁기금\* 운영

- 협력대상국이 정해진 경우 중점협력대상국, 지역별 배분 전략 등 양자원조전략 방향에 부합하도록 시행
- 신탁기금 운영시 우리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관련 기구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한-ASEAN 신탁기금 등

□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지원 증대

##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추진전략

### 가.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원조의 목표

- 양자원조와 함께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서 MDGs 달성에 최우선 순위
- 개발 관련 범지구적 문제 대처
-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노력 강화
- 국제기구 정책수립 및 다자규범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효율성 제고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 나. 중점 분야 및 지원 계획

- (MDGs 달성 관련 분야) 보건, 교육, 여성 등 MDGs 목표 달성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우선적으로 증대
  - Muskoka Initiative 참여공약, 모자보건 분야 MDGs 달성을 위한 UN사무총장 주도 '모자보건세계전략' 이행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중시
  - MDGs 달성이 가장 저조한 지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남 아시아)의 최빈개도국 중시
- (범지구적 개발문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식량안보, 이주, 반부패, 인권, 전염병 문제 등 관련 국제기구 지원 강화
  - 관련 분야 국제협약 이행메커니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관련 국제규범 형성시 우리의 역할 증대 효과 지향

- 식량안보 관련 기존의 기여 약속\* 이행에 뒤이어 식량안보 분야 기여 지속 강화

\* 2008년 MDGs 고위급행사시 WFP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2009-11년간 총 1억불 기여 발표

- (인도적 위기 및 취약·분쟁국가) UN 차원의 신속대응 지원 및 평화구축·민주주의와 법치 증진 등 분쟁예방 관련 협력 강화

- UN개발기구 효율성 제고 지원과 평가 강화

- “Delivering as One”\* 지원기금 기여 방안 검토 등

\* UN개혁 노력의 일부인 ‘체제일관성(system-wide coherence)’ 일환으로 그간 각 UN기구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개발협력 활동을 해당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MDGs 달성목표에 맞추어 하나로 통합(예산, 프로그램, 행정)하고 성과중심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 기구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원 연계 추진

- UN 및 기타 국제기구 정규재원 세부 지원계획(안)\*

분 야		비율(%) *내외	대상기구안**
MDG 전반		30-35	UNDP, UNICEF, UNFPA, UNIDO
MDG 분야별	양성평등/여성의역량강화	3-5	UN Women
	보건	15-20	Global Fund, GAVI, UNAIDS, WHO, IVI, UNITAID
	식량안보	10-15	WFP, IFAD, CGIAR, APFIC, CIFOR
	기후변화 등 환경	10-15	UNEP, GEF, UN Habitat, Biodiversity Int'l's, IPCC, ITTO
	이주, 반부패 등	3-5	IOM, UNODC, UNOHCHR
인도적위기 및 분쟁·취약 국가		10-12	OCHA, PBF, ICRC, UNHCR, UNRWA, UNMAS
아프리카/아시아		2-3	AU
기타		3-5	UNV, UNITAR

\* 의무분담금 중 일부가 ODA로 계상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자원조 정규재원운용계획(안)

\*\* 대상기구목록은 예시안으로 실제적 지원여부는 ‘선택과 집중’ 등 ODA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정

< 2015년 주요 기구에 대한 적정 기여규모 평가 추정치\* >

(단위: 백만불)

기구명	적정기여 규모(안)	기구의 총재원규모 (국가 기여금 기준)	비고
UNDP (UN개발계획)	70	2009년 46억불	UN시스템내 대표적 개발기구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WFP (세계식량계획)	42	2009년 36.9억불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UNICEF (UN아동기금)	65	2009년 19.5억불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Global Fund to fight AIDS, etc.	60	3차재원보충(2011-13) 공여국서약액 99.6억불	국제사회 최대규모의 보건 관련 기금
UNHCR (UN난민기구)	35	2009년 16.5억불	기여금 순위 20위까지 천만불 이상 기여
GEF (지구환경기금)	20	5차 재원보충(2011-14) 서약액 43.4억불	환경분야 대표적 기금
UN Women	20		여성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선도적 지위 고려
UNFPA (UN인구기금)	15	2009년 4.7억불	보건, 양성평등, 인구와 개발 중점 개발기구로 기여금 순위 20위까지 천만불 이상 기여
GAVI (백신면역연합)	15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새로운 initiative
CGIAR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9	2009년 총기여금 6억불	농업분야 연구의 중심기구
UNODC (UN마약범죄국)	9	2010년 재원 4.6억불	마약, 범죄 분야 우리의 관심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8	8차 재원보충 (2010-12) 서약액 10억불	
계	368		

\* 총재원/기여금 규모 중 경제(GNI)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우리 UN정규예산  
분담률 수준인 2% 혹은 공여국 중 10-15위 기준

- 공여국 숫자가 적거나 우리의 특별한 이해가 있을 경우 예외

□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지원(multi-bi) 중 신탁기금  
재원배분

- 우리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 각 시행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에 대한 참여 또는 운영을 강화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다자개발협력분과협의회)논의를 통해  
신탁기금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추후 지원  
계획에 반영
  - 우리 국민의 해당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노력

### 3

##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원조의 효율성 제고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외교부) 및 시행기관간 협의 강화
  - 다자원조 정규재원 기여 및 신탁기금 참여·운영 방안 협의
    - \* 기여 대상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 신탁기금 운영성과 평가 등 공유
  - 각 부·처·청 등 시행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구별 지원 방안 협의 및 조정
- 우리 원조의 가시성 제고 및 다자원조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구 분담금 납부체계 개편
  - 의무분담금 및 ODA 일부 계상 사업분담금은 소관 부처, ODA에 전액 계상되는 UN 산하 기구(사업)·기금의 사업 분담금은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납부
- 다년간 기여 공약 추진
  - 2015년까지 다자원조 확대 계획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짐에 따라 연간단위 예산구조상 어려웠던 다년간 기여 공약을 기구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다자개발기구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 검토
    - \* Global Fund, GEF, IFAD 등 기금은 다년간 자원보충(replenishment) 시행
    - \* 기타 다년간 기여 공약 장려기구: UNDP, UNICEF 등 규모가 큰 기구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활동 평가 강화
  - 집행이사회 등 해당 국제기구 운영회의, 비공식 공여국 그룹회의 참여와 국제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한 평가
  - 국제기구와의 양자 정책협의회를 통한 평가
  - 다자기구평가네트워크(MOPAN) 참여를 통한 평가
  -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해당기구 지원계획, 다년간 기여 공약 추진 여부 검토에 반영

## IV. 긴급구호

### 1 해외긴급구호예산 확대

- 해외긴급구호예산을 '15년까지 전체 ODA 중 6% 수준\*으로 확대

\* OECD/DAC 회원국 평균비율

<연도별 해외긴급구호예산 비율 증대계획(안)>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ODA대비 비율	1.25%	2%	3%	4.5%	6.0%

-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지원 확대\*
  - 재난관련 UN 등 국제기구의 합동지원요청(appeal) 기여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기여 확대
    - CERF, UNICEF, WFP, UNHCR 등
- 중장기적으로 예방, 긴급구호, 재해복구를 포괄하는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되, 긴급구호 직후 재건복구 사업 발굴과 초기 재건복구 지원은 확대된 해외긴급구호예산으로 시행

## 2 효율적 긴급구호시스템 운영

- 「긴급구호업무 표준매뉴얼」을 통한 신속 대응체제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대규모 재해 발생 후 24시간내 관계부처 회의로 대응방향 결정, 군수송기 활용 등 신속대응체제 유지
  - 필수 장비 및 물품 확보, 인력 양성(국내외 훈련과정 운영/참여) 등
-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분담
  - 재난 발생시 지원방안 논의 및 사후 평가 등을 위해 NGO,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제 구성
  - 해외재난 관련 정보공유와 긴급구호 활동 홍보를 위한 해외 긴급구호 홈페이지 구축
  - 민간 긴급구호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 구호물품 수송 지원 및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 3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추진

- 재난예방 역량 구축 지원
  - 역내 협력강화를 통한 조기경보,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활동 등 참여
  - 개도국의 조기경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배양 지원
- 긴급구호에서 재건복구로의 연계 강화
  - 긴급구호 활동 후 현장 평가를 통해 재건복구사업을 발굴
  - 초기 복구사업을 긴급구호예산으로 시행
    - \* 재건복구를 위한 개발협력 예산은 미리 확보되지 않는 점 고려



## V.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1 국제원조규범 준수 및 형성에의 적극적 참여

- (OECD/DAC 규범 준수) 국제 원조규범\* 준수 이행상황을 외교부가 매년 하반기 점검 및 평가

\* '78년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고', '01년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권고',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등

-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2015년까지 100%으로 제고
  -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 대상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2012년까지 100%으로 제고

#### <무상원조 비구속화 확대계획>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구속화 비율	60%	75%	85%	95%	100%
최빈국·고채무빈국 비구속화 비율	80%	100%			

- 연간시행계획 작성시 시행기관은 사업별 비구속화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건축(시공), 기자재, 투자관련 기술협력(개발조사사업 기초·실시설계 및 종합계획, 건설설계용역,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은 비구속화 실시 대상

- 파리선언 이행상황 모니터링 적극 참여 및 관련 논의 내용의 정책 반영 노력 지속

- (규범형성 참여)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규범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2011.11월)의 성공적 개최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성과'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통해 급변하는 개발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개발협력 방향 설정에 기여
    - G20, MDGs 및 HLF간 시너지 창출
    - 우리 개발경험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계기로 활용
  - UN, OECD 등 논의에서 협력대상국과 공여국의 가교 역할 및 규범 형성 논의시 우리 입장 반영
  
- (혁신적 재원 발굴 노력) 국제사회에서 혁신적 개발재원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항공권연대기여금\*(국내명칭: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을 유지·확대하고 새로운 개발재원 도입 가능성 검토
  - \* 개도국 질병퇴치 지원목적으로 출국항공권에 기여금(1천원/장)을 부과(매년 150여억원 조성)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12.9월 종료 예정인 바, 2011년 중 기여금 연장 검토
  -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회의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 가능성 검토
  
- (정책일관성 노력 증진) ODA 정책과 여타 제반 분야의 정책 (무역(Aid for Trade), 농업, 이민, 투자 등)이 협력대상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조화 및 조정을 위한 협력 강화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정책간 상호 조화 및 조정 가능성 모색

## 2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 (정책협의회) 유·무상 통합 '정례 ODA 정책 협의회'를 실시하고, 원조분업 및 공동협력 사업 관련 협의를 강화하여 선진공여국과의 개발파트너십(harmonization)을 강화
  - 현재 운영 중인 일본·영국·EU 등과의 ODA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고, 여타 선진공여국과의 협의 채널 확대
  - 베트남 등 주요 협력대상국의 「원조 공여국 회의」 참여를 통한 원조 분업 방안 모색
- (공동 이니셔티브)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한 「무스코카 이니셔티브」\* 공약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및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가능성 검토
  - 시행계획 작성시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
    - \* 무스코카 이니셔티브(Muskoka Initiative)
      - : 2010.6월 G8 정상회의시 발표된 G8 및 여타 국가/기관의 모자보건(MDG4(유아사망률 감소) 및 MDG5(모성보건 증진)) 관련 추가 공약
      - 우리정부는 기존 지원수준 대비 2011-2015년간 1억 3천만 달러 추가 공약
- (관련 협정·MOU 체결)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을 위한 정부간 협력협정 체결은 외교부를 통해 시행하고, 기관간 MOU는 각 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체결

## 3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 적극 이행**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도 행동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G20 개발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
    - G20 개발 실무그룹(DWG)에 프랑스, 남아공과 함께 공동 의장 수임
    - 분야별 행동계획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정국(facilitator)이 행동계획 이행 및 점검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 체계 구축
  - 「다년도 행동계획」 9개 분야\*별 관련 해당 국제기구들의 제안서, 보고서 등 이행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이행 조치에 기여
    - \* ① 인프라 ② 인적자원개발 ③ 무역 ④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⑤ 식량안보 ⑥ 성장복원력 ⑦ 국내개발재원 확충 ⑧ 금융소외계층 포용 ⑨ 개발경험 공유
  - 「다년도 행동계획」상 G20 회원국으로서의 공약 이행 및 여타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의 이행사항 점검 참여
- G20 개발의제 관련 의장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HLF-4 포함 주요 국제회의에서 G20 개발 의제의 성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G20에서의 개발의제 논의의 지속성 확보
    - G20 트로이카 일원으로, 2011년 의장국인 프랑스와 협력
  - 9개 분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 G20 개발의제의 진전 점검 및 HLF-4 포함 다양한 국제 개발협력 논의에서 G20 결과 반영 등 주도적 역할 확보
- 개발의제 관련, G20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outreach)를 통해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G20 개발의제 관련 연구 기능\* 강화
  - \* 국제개발협력센터 등 활용

## 4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 (대국민 ODA 홍보 확대)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적 ODA 홍보강화 방안\*」에 기반하여 중·장기 홍보 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2010년 신설된 「통합홍보체계」에 부합하는 무상원조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중

- (중·장기 홍보 로드맵) 효과적, 효율적 ODA 홍보를 위해 실행 단계별 중점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

\* 통상, 홍보효과(인지도 증대, 태도 변화, 행위 유발, 여론 확산 등)는 단계적으로 발현

- ▲ 1단계(2011년) : ODA 인지 강화 (인지도)

- ▲ 2단계(2012년) : ODA 수용 확대 (이해도)

- ▲ 3단계(2013년) : ODA 확산 (참여도)

- (정부 공통의 홍보 메시지) 국민들의 ODA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메시지 확립 및 이에 기반한 홍보를 2011년 상반기 중 실시

- (주관기관 공동 홍보) 2011년 중 주관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워크숍 또는 학술대회 추진

-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시행중인 ODA 컨퍼런스 활용 검토

- (민·관 공동홍보) 민간부문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 시민 사회의 캠페인 지원 및 기업의 CRS(사회적 책임) 홍보와 연계 추진

- (주기적 여론조사) 주기적으로 대국민 ODA 인지도 및 지지도 조사를 통해 홍보성과를 평가하고, 홍보전략 및 세부시행 방안을 조정

- (대국민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 장기적인 ODA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교육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안 수립
  -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개발협력 교육 강화
  - 일반인 대상 교육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시행
  -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 교육 모범 사례집 발간\*을 통해 모범적 개발협력 교육 체계, 방법, 내용 등 정리(2011년 중)
  
- (HLF-4 국내 홍보) 2011년 HLF-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ECD/DAC 차원에서 작성 중인 「HLF-4 국제 홍보전략」과 연계성을 갖는 「범정부 통합 HLF-4 홍보 계획」 수립 및 이행

\* 우리 정부는 OECD/DAC 차원의 HLF-4 홍보전략(안) 작성 참여